

윤활소식

—폐기물관리법시행령 공포—

정부는 대통령령 제13480호로 91.9.26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을 개정공포하였다.

이 시행령에는 폐기물처리비 예치제가 처음 도입, 규정되어 있으며 폐윤활유의 경우 당초 ㄹ당 50원으로 입법예고되었으나 업계와 소비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ㄹ당 20원으로 최종 결정되었으며 처리비예치제는 92.1.1부터 시행되도록 연기되었다.

—한국셀석유(주)·선박용윤활유분석 시스템 가동—

선박용 윤활유는 정기적인 점검과 신속한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한국셀석유(주·대표이사 유한교)는 “셀모니터” 최신분석장비와 제도를 도입하여 선박용 윤활유 분석 시스템을 본격 가동하였다.

주로 국내에 정기적으로 입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하여 입항시 항구에서 샘플을 채취하여 대리점에 접수시키면 3일내지 1주일후 결과를 통보하여준다.

각종 금속마모분의 점검이 가능한 이 분석서비스를 활용할 경우 선박의 안전운항에 큰 도움이 될것이라고 선박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으며 분석요금은 샘플당 1만원이다.

“셀”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일본의 쇼와셀사 중앙실험실을 비롯한 셀사 전세계 주요실험실에서 충분한 장비와 인력으로 신속한 사용유 분석시스템인 『Rapid Lubricants’ System』을 운영해 오고 있다.

—미창석유공업(주)·첨가제생산 개시—

미창석유공업(주)(대표이사 유재홍)는 91년 6월 울산공장에 미국듀폰사의 공장설비 원료를 도입하여 국내 최초로 연간 10,000Ton용량(1일 8시간 기준)의 VI Improve를 생산 개시하였다.

—한일윤활유(주) 협회탈퇴—

한일윤활유(주·대표이사 이선종)가 사업목적을 윤활유제조에서 판매업으로 변경함에 따라 91.8말일자로 협회탈퇴신청을

협회에 제출하고 협회는 이사회를 거쳐 탈퇴신청을 승인함으로써 협회를 탈퇴하였다.

—권오관학회부회장·과총주관 우수논문수상—

한국윤활학회 부회장이며 KIST 기전연구부장인 권오관씨는 과학기술총연합회가 주관한 “제1회 1990과학기술우수논문” 심사에서 우수논문으로 확정. 지난 9.9 타워호텔에서 수상식을 가졌다.

이번 우수 논문으로 선정된 논문의 제목은 “탄소섬유/에폭시 복합재료의 마찰 및 마멸 성질에 미치는 습도 및 구조의 영향”이다.

이전안내

○협회사무실·4층에서 8층으로 이전

협회는 10월 29일자로 현재의 영창빌딩 4층(405호)에서 8층(801호)으로 이전하였습니다.

그간 협소했던 공간을 다소 넓혀간 셈이며 전화, FAX등 번호는 변동이 없습니다.